

증산사상에서의 근대성 해석 문제

- 계급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 *

윤 기 봉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요 약〉

근대성이라는 용어는 필연적으로 혁신이라는 용어를 동반한다. 서부유럽에서 근대화의 일환으로 전개된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을 살펴보면, 중세의 권위로부터 탈피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혁신’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에서도 근대성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던 ‘혁신’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근대성을 향한 혁신의 중심에는 기성의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이었던 민중이 있었으며, 기층민 중들을 결집시키고 각성시켜 나가는 데에는 종교문화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때의 종교문화라 함은 기성의 전통종교와는 궤를 달리하는 ‘신종교’라는 점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근대성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 등장한 증산의 사상체계를 중심으로 근대성과 혁신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신분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라는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 나타난 물질적 부의 증대는 기존의 신분제도의 붕괴라는 현상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또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던 경제가 일반 민중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민중을 비롯한 중인계층의 급부상은 사대부 중심의 전통 유교 사회를 흔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종교문화가 사대부 양반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 증산사상, 근대성, 혁신, 민중, 종교문화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대진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서부유럽이 16세기 이래 대략 200-300년간에 걸쳐 이룩한 일련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면에서의 총체적인 변화를 근대화(modernization)라고 지칭한다.¹⁾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전개한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혁신’이라는 용어를 동반한다.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 등 ‘혁신’의 용어를 잘 대변해주는 근대는 ‘과거와의 단절’, ‘새로움의 추구’ 등을 통해 낡은 시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이 속해 있는 시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근대성(modernity)이라는 용어는 어휘자체로서의 의미와 용어에 함의된 것들에 의해 1990년대 이후 한국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수많은 논쟁들을 야기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근대화의 시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19세기 후반을 근대화의 시작시기로 잡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조선후기, 자의적인가 타의적인가에 상관없이 밀려들기 시작한 서구 근대성의 유입은 수많은 전통적 범주들을 자연과 인간, 이성과 감정, 영혼과 육체 등의 이분법적 분류 체계 속으로의 재편성을 요구하였다. 전통적 범주들의 재편성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계급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이다. 중세라는 권위로부터의 탈피와 기술의 진보와 물질적 부의 증대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근대성을 향한 혁신의 중심에는 기성의 지배층보다는 피지배층이었던 민중이 있었으며, 기층민중들을 결집시키고 각성시켜 나가는 데는 종교문화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때의 종교문화라 함은 기성의 전통종교와는 궤를 달리하는 ‘신종교’라는 점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근대성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선후기는 식민지배세력에 의해 많은 것들이 침탈되던 시기였다. 식민지 지배세력은 이른바 사회의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봉건적인 질서를 해체시키면서 피식민지 사회의 구원자처럼 행세하나 실상은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사회문화체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²⁾ 이러한 시기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식민지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종교가 직접적인 수탈 대상은 아니지만 식민지배자들의 전략은 때때로 전통종교가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고, 또한 식민지 사회의 효율적인 수탈을 위해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기존의 농촌 공동체를 해체시켜 임노동을 창출하고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문화체제와 함께 문화 전통과는 무관한 자본주의적인 근대적 개인의 창출이 필요했던 것이다.³⁾ 이러한 상황하에서 등

1) 임현진,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비판』, 역사문제연구소 편(서울: 역사비평사, 1996), 190쪽.

2) 윤승용, 「한국 근대 종교의 성립과 전개」, 『사회와 역사』 제52집(서울: 한국사회학회, 1997), 17쪽.

장한 신종교 운동은 근대성 논의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신종교 운동에는 근대성의 이념과 혁신의 논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 등장한 증산의 사상체계를 중심으로 근대성과 혁신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자는 근대성의 특징을 ‘신분제도의 변화’와 ‘부의 재분배’로 규정하였는바, 이하 본문에서는 근대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증산 사상에서의 근대성과 혁신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II. 근대의 특징 - 신분제도의 변화와 부의 재분배

근대는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쾌락’을 숭상하는 시대이다.⁴⁾ 전근대의 철학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전체적인 질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과 욕망을 극복했을 때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이러한 가르침은 철저히 부서졌다. 그들은 전근대, 그 중에서도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콩도르세(Condorcet)는 중세를 ‘재앙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재앙, 무지, 어둠, 백일몽, 속임수, 전제, 독재 등은 계몽주의자들이 기독교적 중세를 폄하하는 상징적 표현이 되었다.⁵⁾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는 ‘진(眞)’을 자처한 양명학이 주자학을 ‘가(假)’라고 비판했으며, ‘실(實)’을 자처한 실학이 주자학을 ‘허(虛)’라고 비판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전근대적 이상은 허구적 이데올로기로 단죄된 것이다. 근대성을 추구한 사람들이 이러한 단죄를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은 바로 개인적 자유와 물질적 쾌락이었다.⁶⁾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조선은 자체적인 사회경제적 발달을 가지게 된다. 17, 18세기에 이르러 양란에 의해 피폐해졌던 농토가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졌고, 농업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양반지주들의 토지 집적욕을 자극하였으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시켰다. 예컨대 논농사에서 이앙법의 발달은 1인당 경작능력을 직파법을 시행할 때보다 5배나 증대시켰고, 이로 인해 농토에서 쫓겨난 많은 소작농들이 광업·상업 등에 종사하는 임노동자가 되었다. 이러한 비농업인구의 증가는 주곡(主穀)의 상품화현상을 야기시켰으며, 상품화폐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민과 함께 토지 없는 실세한 양반들의 생활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반면에 평민이

3) 윤승용, 앞의 글, 18쪽.

4) 이상익, 『한국 사상사에 있어서 근대성의 발흥』, 『사회와 철학』 2집(서울: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1), 11쪽.

5) 대니얼 J. 부어스틴, 강정인·전재호 역, 『탐구자들』(서울: 세종서적, 2000), 350쪽.

6) 이상익, 앞의 글, 12쪽.

나 중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재력을 이용하여 매관매직을 통한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었다.⁷⁾

조선후기에 실시된 대동법은 점진적인 분업화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곧 사회문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신분제도의 분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양반과 상민으로 양극화 되어 있던 계층구조가 양반층에서 새롭게 중인(中人) 계층이 분리되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들 중인층들은 주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직이나 향리 또는 서얼 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의 등장은 양반 사대부 중심의 전통적 유교 계급사회를 흔들게 되었고, 새로운 질서를 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중인을 비롯한 새로운 신분계층은 전통종교들의 개혁이나 서학의 도입에서만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아니다. 개화기에 시작되는 민족 자생종교들에서도 그들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었다. 동학을 일으켰던 최제우는 서자 출신이요, 최시형도 고아로서 가난하게 살아왔고, 손병희는 지방 서리의 자식이었고, 전봉준은 향리 혹은 평민의 아들이었다고 전한다. 또한 증산교를 일으켰던 강일순도 잔반 내지 상민출신으로 추정되고 그의 종도들은 대개 동학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중인이하의 계층이었다.⁸⁾

개화기 사회문화적 변화의 기본 틀은 신분제도의 급변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19세기 후반에 진주민란을 비롯한 여러 민란들 그리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외되었던 중인 계층의 급부상 등은 사대부 양반층 사회의 기반을 위협했고 사회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종교지형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⁹⁾

조선후기에 나타난 이러한 신분변화는 종교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선후기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중인 계층은 개화기에 이르러 사대부 양반 중심의 전통 유교사회를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이제 종교는 사대부 양반층의 독점적 문화가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국 종교가 사대부 양반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로 인식됨을 뜻한다. 그렇다고 일반 민중들에게 종교 또는 종교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불교와 무(巫)의 경우 일반 민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질서의 변화로 인해 종교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전통사회에서 ‘종교’하면 당연히 인식되었던 양반중심의 신분질서가 개화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종교인식의 틀 속에서 미분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7) 한우근·이성무,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조선후기편(서울: 일지사, 1996), 69-70쪽.

8) 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83-102쪽.

9) 김종서,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과 종교인식』, 『한국문화』 28집(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243쪽.

한국인은 모두 ‘호모 펠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종교의 대중화’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마침내 종교 개념의 보편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종교에 비해 개화기에 등장하는 신종교들이 민중들을 위주로 한 포교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분제도의 변화와 부의 재분배는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의 대내적 핵심 변수였던 것이다.

Ⅲ. 전경¹⁰⁾속에 보여지는 신분제도의 변화

한 사회에서 가치판단의 서열이 뒤바뀐 상태가 될 때, 민중들은 신념체계의 재확립을 요구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기성종교가 스스로 새로워지지 못한다거나 민중 속에서 종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불신받을 때 거기에는 또 다른 종교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¹¹⁾

한국의 신종교 운동이 민중종교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까닭은 이 운동이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계층의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기 때문이며, 민중들이 빈곤, 질병, 무지에서 살아남으려는 움직임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민중이란 역사에 있어서 부나 권력, 그리고 명성이나 특권적 지위에 가깝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총칭이다.¹²⁾ 민중은 권력 엘리트들로부터 소외된 일반 백성, 서민을 지칭하는 것이 된다. 서구의 역사에서 볼 때, 18세기 말 혁명의 새벽을 감지하기까지 승려·기사 등의 특권 귀족계급에 눌러 어두운 삶을 영위해야 했던 이름 없는 다중(多衆)이 바로 그들이다.¹³⁾ 즉 민중은 정치권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피지배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회에 있어서 주로 사회적 생산의 직접 담당자로 되면서 노동산물의 소유자로 되지 못하고 노동의 산물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며, 사회적 지위라는 관점에서는 저변에 있는 사람들, 즉 피동적 성격을 지니는 사람들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기존의 권력에 대항하는 정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조합이나 농민운동에서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 생산자로서의 여러 조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즉 능동적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두 개의 측면을 동시에

10) 『전경』(대순진리회 교무부,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은 증산의 언행을 모아 편성한 종단 대순진리회의 경전이다. 총7개 편, 17개 장(행록 다섯 개장, 공사 세 개장, 교운 두 개장, 교법 세 개장, 권지 두 개장, 제생, 예시), 33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순으로 명기하며, ‘행록 1장 1절’은 ‘행록 1-1’의 형식으로 명기한다.

11) 류병덕, 『한국신종교』(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2), 99쪽.

12) 박헌채, 『민중과 경제』(서울: 정우사, 1979), 8쪽.

13) 한국신학연구소, 『한국민중론』(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30쪽.

갖는 역사적 집단이라고 한다.¹⁴⁾

그렇다면 증산은 ‘민중’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증산은 그의 언설에서 ‘민중’이라는 용어를 두 차례 사용하고 있다.¹⁵⁾ 여기에는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교법1-24)라는 표현을 통해서 증산이 표현하고자 하였던 민중 개념은 몰락양반을 비롯하여 천인, 여성 등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증산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증산의 인간이해에는 반상의 구별과 남녀차별 등 신분계층의 불합리함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적 표명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고 천시되던 민중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증산은 인간을 ‘선령신(先靈神)들이 육십 평생, 헤아릴 수 없는 공을 쌓아서 하늘로부터 얻어낸 존재’¹⁶⁾로 설명한다.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 선령신, 다시 말해 천계-신명계-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체로 설명된다. 여기에는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강한 신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증산은 한국인들이 가지는 전통적 세계관인 천지인의 위계질서를 부정하면서, 인간이 하늘보다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2-56)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라.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요. 내가 놓아주어야 죽느니라.(교법3-35)

동학이 천지인이라는 전통적인 위계질서의 인식의 틀에서 하늘과 인간을 동격화 시킨 것¹⁷⁾에 비해 오히려 인간을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하늘보다 높고 존엄하다는 사상은 기성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상으로서 가히 혁신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봉건사회의 체제 속에서, 특히 조선시대의 계급질서 속에서 소외되고 억눌려 온 농민, 천민, 여성 등 피지

14) 박현채, 앞의 책, 9쪽.

15) 갑진년 十一월에 전주에 민요가 일어나서 인심이 흉흉하니라. ... 이날 밤에 눈비가 내리고 몹시 추워서 노영(靈營)에 모였던 **민중**은 내리는 눈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해산하고 사흘 동안 추위와 눈비가 계속 내리므로 **민중**이 다시 모이지 못하니 민요는 스스로 가라앉았도다(행록3-25).

16) 전경, 교법 2-36 참조.

17) 수운 최제우(1824-1864)와 해월 최시형(1827-1898)을 거쳐 의암 손병희(1861-1922)에 이르러서 그간의 시천주 사상과 인즉천·사인여천 사상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의암은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종지를 ‘인내천’으로 선포하게 된다(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서울: 경서원, 1996), 113-131쪽).

배계층에 있는 민중의 처지를 인식하고 이를 철폐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하나인 계급모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증산은 세속적 지식과 재리에만 어두워지는 인간에서 탈피하여 천지인 삼계의 이법에 따라서 생을 영위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인간상이 곧 도덕군자, 진인(眞人), 신인(神人)이요 ‘하늘사람’이라고 일컫는 인간상이니 이것이 ‘인존’의 인간관념인 것이다. 이러한 인존관은 내재적 본래 심성을 회복한 인간상으로 ‘이상세계 건설’이라는 지향점과 그 실현의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무한 적절하다고 하는 인간관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¹⁸⁾ 증산은 이처럼 인존을 강조하면서 “인망(人望)을 얻어야 신망(神望)에 오른다”¹⁹⁾라는 설법을 통해 신망의 근본이 인망임을 밝힘으로써 모든 권력의 출발점이 민중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인존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양반위주의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이러한 신분제사회에서 양인은 양반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도구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산은 신분제도의 변화를 꾀하였다.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댓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교법1-10).

반상의 구분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라는 계급제도 하에서 신분을 엄격히 구분짓는다. 이는 조선의 모습이었고 사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산이 행한 설법은 반상의 구별로 대표되는 신분제도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회구조에 있어서 반상의 구별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하층민을 우대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이와 함께 적서차별 또한 사회구조적 모순이라 역설하며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²¹⁾ 조선후

18)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65쪽.

19) 전경, 교법1-5.

20)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전경, 교법1-9)

21)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댓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전경, 교법1-10)

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분질서에 대한 반기는 국가지배체제에 대한 대항으로 인지되는 일로써, 반상의 구분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기존의 통치이념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하에선 실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으며, 소외된 민중들을 쓰겠다는 의지의 발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상의 구분해소와 함께 신분질서의 벽을 깨는 또 하나가 여성해원이다.

역사는 남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차별되어야 함을 당연시 하고 있다. 성품에서 남자는 강건하고 능동적·지성적·창조적·모험적·정치적·지배적인데 반해 여자는 유약하고 수동적·비능률적·비정치적·피지배적 이라고 했다. 이같은 남녀의 상이성은 그 기질이 천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고, 아울러 남녀간에 역할과 지위가 다른 것은 자연의 변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는 또한 하늘이 정해준 불변의 이치라고 주장해왔다.²²⁾ 남녀의 기질에서 형성된 이러한 남녀차별관은 특히 가부장제적 조선사회에서 권력이 남성에게 집중되고, 남녀관계가 지배·피지배관계로 조직화됨에 따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존재’이며, ‘남성의 보조적 역할수행자’라는 남존여비의 규범으로 이념화 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산은 또 한번 그만의 독특한 인간관 - 여성관 - 을 피력한다.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교법2-57).

선천이 남자에 의해 여자가 수천 년 동안 억눌려 온 시대라고 본다면, 후천은 모권(母權)의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 경우의 모권은 역사적 형태로서의 여성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성이 남성 우위에 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음세상이란 상생이 주장이 되고, 상생이 바탕이 되고, 상생이 핵심이 되는 고른 음양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가부장제 대신 즉자적인 원시적 모권제의 형태가 부활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²³⁾ 오랜 세월동안 유교의 구습에 젖어 당연히 지녀야 할 권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많은 한을 품고 있어야 했다. 이러한 시기에 증산이 내세우는 여성관은 기존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것으로 남존여비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존여비의 관습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성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세울 것²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2) 박용옥, 『삼국사의 여성기사에 나타난 성차별, 여성』, 『역사와 현재』(서울: 국학자료원, 2001), 11쪽.

23) 김지하 외, 『미륵사상과 민중사상』(서울: 한진출판사, 1988), 24쪽.

24) “후천에서는 그 님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전경, 교법1-68)

IV. 증산에 있어서 생산과 분배의 문제

신분계층의 분화는 부의 분배를 가져왔다. 이는 곧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근대의 천년왕국운동을 개략할 것이다. 그리고 19세기말 제국주의의 침입을 받은 조선사회에서 발생한 증산사상에서 보여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천년왕국운동이 왕성했던 시기는 자본주의가 생성, 발전하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즉 전통적인 사회의 내부에서 자본주의가 생성되던 16, 17세기와 그 자본주의가 여타 생산양식에 대하여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초기에 천년왕국신앙이 만연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 민중종교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는 19세기로 이 시기는 제국주의의 침입기로서 한 사회의 외부로부터 자본주의가 침투하고 이식됨으로써 전통적인 경제가 붕괴하는 시기였다.²⁵⁾

17세기 중엽, 영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혁명적 진통을 겪게 된다. 자본주의의 추진 주체로서 경제력을 장악한 자본가적 지주, 대상인 및 산업 부르조아들은 이제는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변한 절대주의 왕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생산자를 비롯한 일반 민중과 연대, 혁명을 일으켰다. 7년에 걸친 내전의 결과 크롬웰(Oliver Cromwell)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조아세력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일반 민중의 정치적 열망은 거의 무시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로 이 시기에 토지상실 빈민이며, 수공업 직인들 사이에 영국국교나 정통 청교주의(淸敎主義, Puritanism)가 아닌 제3의 종교문화가 널리 퍼져 나갔던 것이다.²⁶⁾ 영국혁명기 때 발생했던 종파들은 영국사회가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되찾은 17세기 말부터는 급속히 쇠퇴하였으나, 천년왕국설의 전통은 18세기 민간차원에서 잔존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천년왕국운동은 산업혁명기, 즉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다시금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제까지 한 사회 내부의 단순한 생산양식에 불과하였던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통하여 여타 생산양식을 포섭하고 사회 전부분을 지배하는 규정적인 생산양식으로 전환하였다. 공장제 생산, 농촌인구의 감소, 도시화, 노동계급의 증가 등 자본주의가 초래한 새로운 질적 변화는 근로 민중에게 중대한 도전이었으며,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소생산자층의 저항 또한 격렬해졌다. 이 시기에 상당수의 근로 민중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천년왕국설(예컨대 제7일 재림교회 등)이 유포되었다.²⁷⁾

그렇다면 19세기 말 제국주의의 침입을 받은 조선사회는 어떠하였는가?

25) 이영석, 「자본주의와 민중종교」, 『증산사상연구』 제16집(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90), 132-133쪽.

26) 위의 글, 137쪽.

27) 위의 글, 139쪽.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독점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을 위하여 비서구세계를 그들의 원료·상품시장 겸 자본수출시장으로 편입시켰다. 제국주의의 침탈을 당한 지역이면 모두 다 그러하겠지만, 19세기 후반의 조선사회는 봉건체제의 해체와 동시에 식민자본주의의 팽창을 통하여 전통적인 농민경제의 파국을 경험하게 된다.

개항을 계기로 활발하게 진행된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조선침략은 국내에서 개항 이전부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점차 그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던 봉건경제에 격렬한 변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조선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이 창출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제 조건들은 구미 자본주의 열강에 의해 생성되고 촉진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충분히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조선경제를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구성부분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부속물로 전락시켰다. 결국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조선침략으로 인하여 조선은 정치적으로 반식민지화의 위기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반식민지화가 진전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에 의해 발생된 민족모순이 주요한 사회모순으로 대두되어 종래의 봉건지배층과 민중 사이의 모순과 뒤섞여 결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조선사회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징조로서 바야흐로 당시 조선사회가 반봉건식민지 사회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내에서 나타난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의 변화는 계급관계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이처럼 개항 이후의 조선사회에서는 소수의 지주·부농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더욱 높아져 갔는데 반하여 빈농을 비롯한 영세수공업자, 영세상인층, 맹아적 노동자층, 실업자 등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더욱 더 몰락과정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빈농, 영세상인층, 노동자층, 실업자 등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몰락과정을 걷고 있었지만, 19세기 중엽 이후 계속 고양되어 온 반봉건외세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을 몰락시키고 있던 내외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보다 철저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동요하고 있던 다수의 부농층과는 달리, 이 시기 제반 모순의 담지자로서 변혁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²⁸⁾ 특히 농민들의 사상 내부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의 일상적 감성에 적합한 논리구조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과 전파력을 지니면서 농민층을 반봉건 항쟁의 일선에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봉건적 지배질서를 부분적으로가 아닌 총체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²⁹⁾

이처럼 급속히 전개되어가는 국내외의 상황 속에서 종교적 선각자들은 전통적인 신앙의 변용을 통하여, 현세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28)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서울: 돌베개, 1989), 89-91쪽.

29) 위의 책, 21쪽.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민중신앙 가운데 가장 영향을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것은 미륵신앙과 『정감록』에서 나타나는 진인사상을 들 수 있다.³⁰⁾ 봉건지배체제하에서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었던 민중들은 유교 등의 정통종교를 추구하기 보다는 비정통적인 신앙형태에 대한 지향을 통하여 그들의 집단적인 열망을 축적시켰다. ‘미륵신앙’과 ‘진인’은 민중의 열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민간에 널리 전파되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의 신종교들은 이러한 민중신앙의 요소들을 수렴하게 된다.

증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저하리만큼 기층민중의 현세적 해방을 추구한다. 증산은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교법1-24)들을 포용하고자 하였으며, 제자들에게 대한 훈계와 가르침에서도 말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 민중에 대한 강한 친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증산사상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즉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생산과 분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자본가와 임노동 계급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상호 대립적인 관계인 바, 당시의 상태가 이들의 긴장과 갈등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³¹⁾

생산과 분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면이 보여지지는 않지만 다음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욕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

증산사상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내용이다. 후천에서는 계급이 존재하더라도 선천에서처럼 억압속의 존재가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은 경제적 이상이 실현됨을 또한 의미한다. 그래서 증산은 ‘빈부의 차별이 없음’을 통해 경제적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다.

증산은 ‘빈부의 차별이 없음’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30) 황선명, 『후천개벽과 혁명사상』, 『한국근대민중종교사상』(서울: 학민사, 1983), 참조.

31)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전경, 공사1-3)

후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으니라. 그러나 식록은 고르리니 만일 급이 낮고 먹기까지 고르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교법2-58)

후천에 두 계급이 있으나 식록은 고르다는 표현은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돋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교법 3-41)라는 표현과 함께 기본적으로 경제적 계급관계의 소멸을 상징한다. ‘부의 재분배’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다.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공사1-31) 등에서 보이듯이 식록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한 것은 가장 근본적이며 생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민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에 대한 증산의 독특한 해석을 찾아볼 수도 있다.

선천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이 뒤로는 그 눈을 밝게 하여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리라.(교법1-63)

경제적 부의 획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깨끗하고 건전하며 정직한 단계와 과정을 통해 경제적 부가 창출되는, 경제정의가 구현된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생산체제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취는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와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증산은 과학기술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상제께서 어느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네가 나의 말을 좇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좇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 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나 건어야 옳으나.」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공사1-35)

용력술을 배우지 말지이다. 기차와 윤선으로 백만근을 운반하고 축지술을 배우지 말라 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리라.(예시75)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는 과학문명을 의미하는 바, 과학문명이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도구로 이용되고 있지만, ‘민중의 해방’이라든지 ‘부의 재분배’ 문제는 고도의 사회적 생산력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과학문명은 모든 민중의 고통을 절감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민중해방’과 ‘부의 재분배’로 이

끌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의 재분배 문제는 부의 재분배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사회와 비교할 때, 한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던 경제가 일반민중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급제도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은 조선후기 등장한 증산의 사상체계를 중심으로 근대성과 혁신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근대성의 특징을 신분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로 규정짓고,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부유럽이 16세기 이래 약 200~300여 년간에 걸쳐 이룩한 총체적인 변화를 근대화라고 정의 한다면, 근대화에는 ‘혁신’이라는 용어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중세라는 권위로부터의 탈피가 시사하는 바가, 새로이 등장하는 세력에 의한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신의 중심에는 피지배층이었던 민중이 있었으며, 기층민중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아가는 데에는 종교문화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때의 종교문화는 혁신을 요구하는 민중의 대의를 대변하듯 구습에 젖은 전통종교와는 궤를 달리하는 신종교였다는 점에서 근대성에서 이야기 하는 혁신의 논리와 신종교 운동에서의 혁신의 논리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의 논리가 궤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자력적 근대화나 타력적 근대화나 하는 문제가 남는다. 한국의 근대성은 독특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다. 서양문물의 유입이라는 외재적 요인과 조선내부에서 일어난 생산양식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인식변화라는 내재적 요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외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세력에 의한 식민지배 등을 겪으면서 주입된 근대성은 자발적 근대화라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근대 신종교운동은 타력적인 사회변동을 거부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사회변동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적인 근대성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증산사상에서 보여준 신분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 문제와 관련된 근대성 논의는 묻혀있던 민중을 세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조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실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으며, 부의 재분배 문제를 ‘식록은 고르리라’라는 표현을 통해 가장 근본적이고 생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민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민중에 대한 증산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근대성은 민중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전개되어지는 바, 이상에서 논의된 근대성 문제는 민중이 주체인 한국 신종교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장이 될 것이며, 더불어 한국 신종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장태, 『한국근대의 유교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서울: 백산서당, 2003.
- 김종서, 「개화기 사회문화 변동과 종교인식」, 『한국문화』 28집, 2001.
- 김지하 외, 『미륵사상과 민중사상』, 한진출판사, 1988.
-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서원, 1996.
- 대니얼 J. 부어스틴, 강정인·전재호 역, 『탐구자들』, 서울: 세종서적, 2000.
- 류병덕, 『한국신흥종교』, 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2.
-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 돌베개, 1989.
- 박용옥, 「삼국사의 여성기사에 나타난 성차별,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 박현채, 『민중과 경제』, 정우사, 1979.
-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비판』, 서울: 역사비평사, 1996.
- 윤승용, 「한국 근대 종교의 성립과 전개」, 『사회와 역사』 제52집, 한국사회학회, 1997.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마무라 히토시, 이수정 역, 『근대성의 구조』, 서울: 민음사, 1999.
- 이상익, 「한국 사상사에 있어서 근대성의 발흥」, 『사회와 철학』 2집,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1.
- 이영석, 「자본주의와 민중종교」, 『증산사상연구』 16집, 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90.
- 임현진,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비판』,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996.
- 한국경제사학회 편, 『한국사 시대구분론』, 서울: 을유문화사, 1970.
- 한국신학연구소, 『한국민중론』, 한국신학연구소, 1984.
- 한우근·이성무, 『자료로 본 한국문화사』 조선후기편, 서울: 일지사, 1996.
- 황선명, 「후천개벽과 혁세사상」, 『한국근대민중종교사상』, 학민사, 1983.
- 황필호, 「민족주의와 종교」, 『종교연구』 22집, 2000.

원고접수: 2010년 11월 15일 1차심사: 12월 3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 소개: 윤기봉(尹起鳳)

① 전공: 인도철학, 종교학

② 관심영역: 인도철학, 한국신종교

③ 주요논저: <불교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근대에 있어서 한국종교의 개혁사상—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의 의례와 믿음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관>, <증산 강일순의 인권사상>

④ E-mail: yungb@daejin.ac.kr

Abstract

**Interpretation of Modernity in Jeung-San Thoughts:
With Respect to Collapse of Hierarchical System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Yun, Gibong

Daejin University

Modernization refers to a series of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over 200~300 years since the 16th century in Western Europe.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hich touches virtually every realm of reality, inevitably entails the idea of innovation. Modern society fully embraces the notion of innovation characterized by important historical landmarks such as Reformation, Industrial Revolution and Bourgeois Revolution. It endeavors to break from past and promote novelty. Through these approaches, modern society effectively criticizes the bygone era and demands for a major transition in perception of the contemporary society.

Since 1990s, the meaning of the word ‘modernity’ and concepts it underlies have stirred up many controvers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fields of study in Korea. Although there seems to be no consensus on the issue of how Korea became to be a modern society it is now, it is generally agreed that Korean society began its modernization proces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establishment of Western ideologies and institutions in Late Choson Korea, regardless of arbitrary or willful manner in which it was prompted, required readjustment of many conventionally and traditionally accepted values. Collapse of hierarchical system and redistribution of wealth are the most preeminent aspects of this readjustment. Decline of traditional authority, augmentation of material wealth and innovation in technology in the Middle Ages have resulted in such a phenomenon. It was the public and not the ruling group that led this rapid movement towards modernity, and religious culture played an indispensable role in uniting and educating the mass.

Religious culture at the time differed from the doctrines and values that traditional religions upheld, in the sense that it linked itself with principles of progress and innovation that modernity encompassed.

This paper seeks to explain the logic behind modernity and innovation that emerged in Late Choson, along with Jeung-San thoughts. It aims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modernity and its relation to innovation as explained in Jeung-San thoughts..

Key words : Jeung San thoughts, Modernity, Innovation, the Public, Religious culture